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 연구 - 패션 정치의 관점에서 -

한 지 은* · 정 성 혜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교수

요 약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치인들의 외모와 패션 스타일은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그들의 패션 스타일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대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를 대표적 인물로 선정하여 패션 스타일의 한 요소인 색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국내의 사진기사로 83여점을 선별하여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미셸 오바마의 패션이 회자되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의 사진기사와 당선 후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외교사절의 모습 사진기사, 그리고 미국 내 캠페인이나 포럼 등의 자국의 공식행사의 모습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패션 색상을 NCS 색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진의 색상은 3명의 패션전문가에 의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였고, 색의 측정은 비비드 톤에서 측정하였다. 논문의 결과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은 Y, R, RB, B, BG, N계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Y, R, RB, B계열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되었다. Y계열은 명량함, 유쾌함, 높은 이상, 희망, 낙관을 상징하며 RB계열은 화합, B계열은 보수와 민주당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에서 색조에서 순색량은 0~85까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무채색에 가까운 0~20까지를 제외하면 30~85까지 범위의 순색빈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NCS색상각형의 S-C축 가까이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백색량이 적은 색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간의 색조 배색은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미셸 오바마, 패션 정치, 색상, 자연색체계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2011년 2월 1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21일

교신저자: 한지은, mimir00@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미디어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 중 현대 정치에서 색상은 중요한 상징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이념과 사상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정당의 상징적 색상을 선정하여 이미지화하며, 많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색상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색상의 정치적 활용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되고, 나아가서는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치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도 주로 남성에게 국한 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회자되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의 패션 이미지를 색상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색상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알아보고 성공적인 활용의 예로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퍼스트 레이디의 패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하며, 또한 국내의 경우와 비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자료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국내외 사진 기사로 한정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미셸 오바마가 이목을 끌던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의 기사와 사진을 수집하였다. 그 중 상·하의 패션을 모두 볼 수 있

는 사진기사와 상의만 나왔지만 하의를 추정할 수 있는 원피스 등의 사진기사와 같이 색상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 사진기사 83여점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진기사는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미셸 오바마의 패션이 회자되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의 사진 기사와 당선 후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외교사절의 모습 사진 기사, 그리고 미국 내 캠페인이나 포럼 등의 자국의 공식행사의 모습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패션 색상을 분석하였다.

패션 색상은 위에 언급한대로 3가지 상황에 맞추어 NCS 색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진의 색상은 3명의 패션전문가에 의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였고, 색의 측정은 색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비비드 톤에서 측정하였다. 사진기사의 상황에 따라 주조색과 보조색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조색과 강조색으로 나타난 2색 대비도 존재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진기사에서 나타나는 색상을 포토샵으로 L*a*b*값을 구한 후 주어진 측색값 수치에 대등한 NCS 노테이션(notation)를 찾는 방법으로 색차 공식을 활용했다. 측색한 L*a*b*값을 색차 공식에 1:1로 대입하여 1750가지의 산출된 색차 값 중 순위를 따져 가장 값이 낮은 NCS 노테이션을 선택하면 자연색체계의 표기를 찾을 수 있다. 색차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¹⁾

$$\Delta E^*ab = \{ \Delta(L^*)^2 + \Delta(a^*)^2 + \Delta(b^*)^2 \}^{1/2}$$

$$= \{ (L^*2-L^*1)^2 + (a^*2-a^*1)^2 + (b^*2-b^*1)^2 \}^{1/2}$$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정치

1) 패션 정치의 정의

풍속의 역사를 쓴 폭스(Eduard Fuchs)(1912)가

말하듯 의복은 계급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최신 패션은 권력과 재력의 확고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²⁾ 특히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패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용되었으며, 과거 지배 계급은 색상과 복식 규제를 통해 신분을 나타내었다.³⁾

김성복(2004)은 오늘날의 권력과 패션과의 상관관계는 과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세습적인 지배계층인 왕과 달리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전통적인 권력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⁴⁾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위원(2010)⁵⁾에 따르면 “사회학자들은 각 개인의 의상은 그 자체가 기호 언어이며 무언(無言)의 신호체계, 곧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존재한다고 정의한다고 하면서 요즘 학계에선 정치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한데 패션을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정치적 위상과 철학을 내보이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가 선거의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⁶⁾ 김민수(2000)⁷⁾는 그의 저서 「정치 디자인 권력」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은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TV의 발명과 대중적 보급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을 안방에서 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준웅(1998)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방향등을 TV 토론, 포스터 및 잡지 촬영 등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시각적·청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⁸⁾ 세계적인 패션 칼럼니스트 아리아나 허핑턴(Ariana Huffington)이 “사석에서 만난 주요 일간지 정치부 기자에게 ‘요즘 어떤 정치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하자 기자의 대답이 놀라웠다. ‘그럼 그 사람 이제 성공하겠네요.’ 정치부 기자들

도 이제 정책보다 외모와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다”⁹⁾라는 일화를 소개하였듯이 패션을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이다.

위와 같이 과거로부터 패션이 정치적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현재 패션 정치란 용어의 사전이나 학계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김성복의 논문에서 파트의 주제가 ‘미디어 시대의 패션 정치’나 고대훈 논설위원의 ‘패선정치’라는 주제의 칼럼, 미국 대선 패션 정치학이라는 기사의 제목 등으로 패션 정치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0년 11월 17일 중앙일보 기사¹⁰⁾ 본문 중에 “패션 폴리틱스(fashion politics)”, 말 그대로 패션이 정치인 시대다”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하나 명확히 정의 되어 사용되진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위의 내용들을 규합하여 패션 정치란 정치적 전략 혹은 목적을 가지고 패션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패션 정치의 사례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과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대토론에서 토론장의 배경과 같은 회색양복을 입은 닉슨보다 케네디의 짙은 색상 양복이 돋보인 것¹¹⁾에서부터 패션 정치로 보는 가장 큰 사례로 꼽는다.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그의 보수주의 이념은 공식 석상에 즐겨 입었던 짙은 색상의 정장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 레이건은 의상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¹²⁾ 또한 전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브로치를 달았으며, 협상 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내 브로치를 읽어라”는 대답을 내놓곤 하였다.¹³⁾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패션이 정치적 매우 중요한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과거부터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관심을 받았고¹⁴⁾, 그 후로 정치인들의 패션 전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가장 실패한 사례로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사례¹⁵⁾로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패션 정치에서 색상의 비중을 대변한다.

미국과 국내의 대선에는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통설이 깊숙이 반영된 기사들이 발표되고¹⁶⁾¹⁷⁾ 정치인들의 외적 이미지가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는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레니 넘치는 ‘얼짱 여성 정치인들』(2009)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중앙일보 칼럼¹⁸⁾은 세계의 미녀 정치인들의 스타일과 그들이 지향하는 이미지에 대해 언급하며, 『“스타일로 권력을” G20 정상들의 ‘패션정치학’』(2010)¹⁹⁾에서처럼 세계 정상들의 패션에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읽고자 노력한다.

패션의 정치는 『클래식 슈트는 신뢰·블루 넥타이는 냉정함…패션 보면 정치가 보인다?』(2010)²⁰⁾에서처럼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상징색 = 주황색… 노무현 색깔빼기 주력』(2007)²¹⁾처럼 나라 안에서만 갖는 고유한 의미도 존재한다.

정치인들 못지않게 그들의 배우자들은 선거기간이나 재임 당시 동반이 갖고, 이들의 노출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의 이미지와 패션 스타일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에 대해 미셸 말킨(Michelle Malkin)(2010)²²⁾은 그녀는 정치 유세에 나선 순간부터 정치인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의 리서치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영부인의 영향력을 조사한 바 있다. 1997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²³⁾에서 1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설문에서 54.7%가 ‘대선 후보 부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내보였다. 그리고 선거운동 당시 대선

주자와 그들의 부인들,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패션에 관련된 기사를 볼 때²⁴⁾, 정치인의 부인들이 대변하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녀들의 패션이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2. 색채 이론

1) NCS 색체계(Natural Color System)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의 현대 물리학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 개념이 대두되면서 절대적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색채의 계획에 있어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환경색채 즉, 자연색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²⁵⁾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1964년부터 연구되어 1972년 발표된 NCS 색체계는 자연색체계로 Y(Yellow), R(Red), B(Blue), G(Green), W(White), S(black)의 4가지의 유채색과 2가지의 무채색을 합하여 모두 6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한다. 색상은 색상분포도에 의해 표기되어 보이며, 색조는 색조분포도에 표시되어 지각되기 쉽다. 색조는 Color의 중심 C, White의 중심 W, Gray의 중심 7500, Black의 중심 S, Tint의 중심 0075, Tone의 중심 5040 그리고 Shade의 중심 7525으로 나누어진다.²⁶⁾ NCS는 다른 색체계가 빛의 강도를 토대로 색을 표기를 하는데 반하여, 심리적인 비율 척도를 사용하여 색 지각량을 표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기존의 오스트발트 시스템의 한계점인 표기방법(색상은 숫자로 명도스케일의 단계는 알파벳으로 표현하여 색명을 이해하기 어렵고 차원적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표기방법이 아니다.)과 먼셀 시스템의 한계인 실제 배색에서의 상대성에 의한 확률적 표현 문제로 인한 지각문제를 개선하였다. NCS의 자연스러운 색의 척도 체계는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색지각의 위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²⁷⁾

또 NCS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색체계로서 지각경험에 기초한 현상학적 입장에서 색을 표현하므로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색채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며, 색채를 지각하는데 있어 인접색과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개념으로 확실적인 색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고 있으며²⁸⁾, 색조 중심으로 색을 분류할 때 색채의 기억이 용이하고, 색상의 범위를 지적하거나 이미지를 반영하기 쉬우며, 결국에는 조화를 생각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색상의 상징과 의미

① 노랑

노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를 상징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 색으로 지고지순함, 순수함, 명랑함, 유쾌함, 높은 이상²⁹⁾, 희망, 낙관을 의미한다.

② 주황

비현실적이며 자유분방한 주황은 대화, 야망, 즐거움, 포용성, 풍부함, 관대함, 감수성을 연상시키며 또한 증오, 오만함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³⁰⁾

③ 빨강

전쟁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빨강은 피와 생명의 색이며, 자유, 노동자, 진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치적인 색이다. 정치적이 대립 판도에 따라 빨강은 사회민주주의자, 극좌파, 테러리스트가 되기도 한다.³¹⁾

④ 보라

보라는 권력, 허영, 방황, 예술, 독창, 동성애, 페미니즘을 대변한다.

⑤ 파랑

파랑은 보수, 성취, 헌신, 신중, 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색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색이며³²⁾, 파랑은 장기적으로 인정받고 단순한 열정이

아닌 상호이해를 중요한 미덕으로 삼는 색이다.³³⁾

⑥ 초록

생산과 희망, 젊음, 시민의 색으로 대변되는 녹색은 색채 상징학에서 가장 중립적인 색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배색에 따라 결정된다.³⁴⁾

⑦ 검정

자기 방어, 지적 능력 등을 상징하는 검정색은 권위와 엄숙, 절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⑧ 하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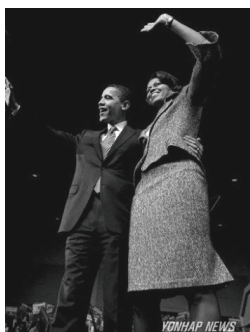
흰색은 자신의 내적 욕구를 숨기는 색이며³⁵⁾,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

III. 미셸 오바마의 사진기사 분석

1. 사진 기사의 분류 및 대표 스타일 분석

미셸 오바마의 사진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국내외의 신문 및 주간지의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의 기사에서 수집하였다. 총 125점의 사진이 수집되었으며, 이 미셸 오바마의 사진 기사는 내용기사와 기사의 제목을 토대로 3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3가지 상황은 취임 전 선거운동, 외교사절, 자국의 공식행사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분류과정에서 3가지 상황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사생활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사진 19점과 상황은 분류되나 상의의 일부만 나와 의복의 전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 23점은 배제하여 총 83점의 사진을 분석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사진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당선되어 취임식이 있기 전까지의 사진 기사 16점으로 분류되었고, 외교사절의 사진은 다른 나라의 방문시의 모습과 국제적 행사에서의 모습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



<그림 1> 선거운동의 대표 이미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8&oid=091&aid=0001939708>)



<그림 2> 외교사절의 대표 이미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8&oid=091&aid=0002326395>)



<그림 3> 자국행사의 대표 이미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1&aid=0002511617>)

을 받은 취임식 때의 기사도 외교사절 모습으로 분류하였다. 외교사절의 사진기사는 모두 29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의 포럼이나 캠페인 등의 자국의 공식행사의 사진 기사는 38점으로 분류하였다.

색상의 명칭은 색상색환표를 중심으로 Y계열을 G80Y-Y20R까지로 보았고, YR계열을 Y30R-Y70R, R계열을 Y80R-R20B, RB계열을 R30R-R70B, B계열을 R80B-B20G, BG계열을 B30G-B70G, G계열을 B80G-G20Y, GY계열을 G30Y-G70Y, 그리고 무채색인 N계열로 지칭하였다. 또한 색조는 색조삼각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일 백색량, 동일 흑색량, 동일 색상량, 동일 뉘앙스, 동일 채도, 동일 명도를 살펴보았다.

각 상황별 대표 이미지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위의 세 대표 이미지에서 보이듯 미셸 오바마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수트나 원피스에 가디건 또는 원피스에 재킷을 입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실루엣은 몸을 따라 흐르는 슬림 앤 핏 스타일이나 투피스 정장일 경우에는 A라인과 플레어라인이 나타난다. 스커트의 길이는 주로 무릎 선으로 무릎을 살짝 가리거나 무릎 바로 윗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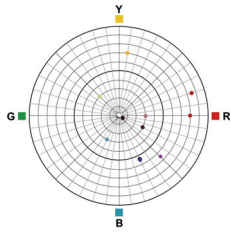
소매는 민소매, 5부, 7부, 긴 팔 등 다양하게 나

타지만 계절과는 상관관계가 적게 나타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을 보인다.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7부와 긴팔로 등장하고 드레스업을 해야 하는 행사나 활동성이 강조되는 행사에서는 민소매의 의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도 보이듯 검정색의 넓은 허리띠를 하이 웨스트로 착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액세서리는 주로 진주 목걸이와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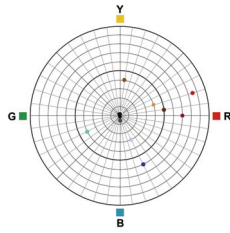
위에서 간략히 설명 하였던 미셸 오바마는 공식적인 스타일은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녀의 스타일이 정치적으로 각광받고 이슈화가 되는지 그 이유를 본 연구는 색상에 있다는 가정 하에 패션 색상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한다.

2. 선거운동 시의 색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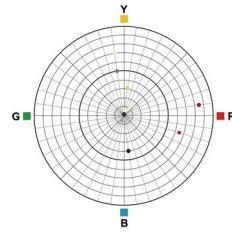
먼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미셸 오바마의 사진 기사 16점의 색상분포도는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4>의 선거운동 시 주조색의 색상 분포도를 보면 의상의 주조색은 N계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N계열 약 31%를 제외하면 R과 B의 사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계열의 약 25%, RB계열 약 25%, B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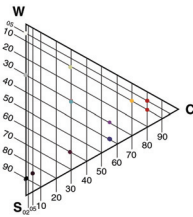
<그림 4> 선거운동 시
주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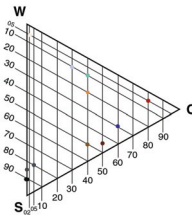
<그림 5> 선거운동 시
보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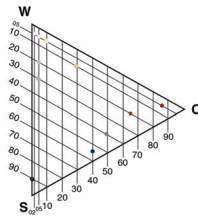
<그림 6> 선거운동 시
강조색 색상분포도



<그림 7> 선거운동 시
주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8> 선거운동 시
보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9> 선거운동 시
강조색 색조분포도

계열 약 6%, GY계열 약 6%, Y계열 약 6%로 나타난다.

이는 엘리자베스 라이트풋(Elizabeth Lightfoot) (2009)³⁶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푸른색과 공화당의 붉은색을 섞어 화합을 의미하는 보라색 계열은 두 당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시기 버락 오바마의 연설의 주제는 국가의 단합이며 인종차별을 지양하고 변화를 선거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미셸 오바마의 보라색 계열의 의상과 상이하며, 버락 오바마의 진보성향의 연설과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는 R계열 색상을 주조색으로 한 의상과 국가의 단합이라는 연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RB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한 의상이 등장하여 각각 25%를 차지한다.

<그림 5> 선거운동 시 보조색의 색상분포도를 보면 <그림 4>의 주조색의 색상 분포도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표 1>을 통해서도 보조색은 거의 주조색의 톤 다운된 같은 영역의 색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강조색의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강조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주조색이 무채색일 경우 강조색은 Y계열, R계열, B계열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조색이 무채색이 아닐 경우 반대로 강조색은 무채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조색이 무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림 3>과 같은 검은색 벨트를 선거운동 시에도 착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또한 볼드한 진주 목걸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9>의 색조 삼각형을 보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며, S-C축에 가까운 Shade색조와 White색조, Gray색조, Black색조에 몰려서 나타난다. 그밖에 Color색조와 Tint색조가 보이며, 주조색에서는 Tone색조도 보여진다. 색조의 배색을 보면 White-Shade-Color, White-Black-Tone, White-Tone-shade, White-Gray-Black, Tint--Tone-Black, Tint-Shade-Black의 다양한 색조 배색을 보여준다.

3. 외교사절 시의 색상분석

취임식 때의 레몬 그래스 옐로(lemongrass-yellow) 코트와 원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기사화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검정색과 빨간색 일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시 미셸 오바마의 패션을 정치적으로 읽으려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이혜운 기자(2009)³⁷⁾는 『“퍼스트레이디 미셸 ‘패션’으로 연설하다』라는 화두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하현옥 기자(2009)³⁸⁾는 『희망과 낙관을 입은 미셸』이라는 화두로 레몬 그래스는 햇빛이 가득 담긴 색으로 희망을 상징한다”며 “파랑·빨강과 같은 진부한 색깔보다 낙관을 상징하는 레몬 그래스 빛깔로 미셸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다”라는 톨레도(Isabel Toledo)의 말을 인용하여 패션 색상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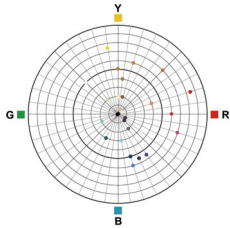
이 후 미셸 오바마는 ‘변화와 희망의 퍼스트레이디’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미셸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제목으로도 활용되었다. 노출 폭이 넓은 외교사절로의 모습을 보일 때 미셸 오

바마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대변하듯 외교사절시의 미셸 오바마의 사진 기사 29점에서는 Y계열의 색상의 빈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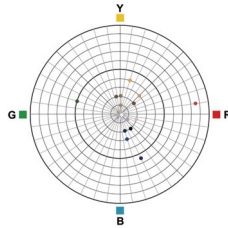
<그림 10>의 외교사절 시 주조색에서 Y계열은 약 21%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R계열이 약 17%, RB계열이 약 17%, N계열이 약 14%, B계열이 10%, YR계열이 약 7%, BG계열이 약 7%, GY계열이 약 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의 보조색 색상분포도를 보면 주조색의 색상분포와 흡사하나 역시 채도가 낮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의 외교사절시의 강조색의 색상분포도를 보면 보조색에 비해 채도가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조색과 강조색의 대비를 보았을 때 선거운동 시에서는 주로 무채색과 색상 간의 강조로 나타났다면 외교사절 시의 강조색은 색상의 채도 차를 이용한 대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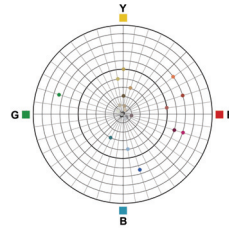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의 색조의 사용을 보면 선거운동 시의 <그림 7>, <그림 8>, <그림 9>보다 확산된 분포를 보이며, C에 가까운 Color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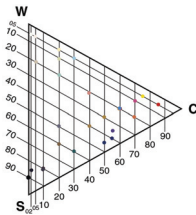
<그림 10> 외교사절 시 주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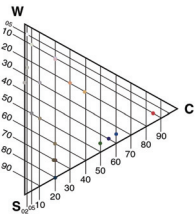
<그림 11> 외교사절 시 보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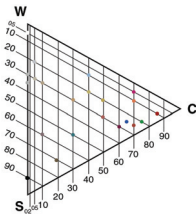
<그림 12> 외교사절 시 강조색 색상분포도



<그림 13> 외교사절 시 주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14> 외교사절 시 보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15> 외교사절 시 강조색 색조분포도

의 증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고채도의 색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간의 색조 배색은 White-Tint-Gray, White-Color-Shade, White-Tone-Shade, White-Tone-Black, Color-Gray-Black, Gray-Tint-Color, Gray-Shade-Black, Gray-Tone-Black, Tint-Tone, Shade-Gray, Tint-Black, Color-Tone, Color-Black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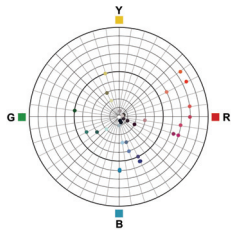
4. 자국행사 시의 색상분석

자국행사 시의 미셸 오바마의 주조색의 색상분포는 <그림 16>과 같다. 전 계열 걸친 색상이 등장하고 빈도순은 R계열이 약 26%, B계열이 약 18%, RB계열이 약 16%, N계열이 약 13%, YR계열이 약 8%, BG계열이 약 8%, GY계열이 약 5%, Y계열이 약 3%, G계열이 약 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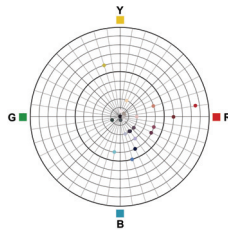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현상은 외교사절시의 Y 계열이 자국행사 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2010년 3월 9일자 조선일보³⁹⁾에는 『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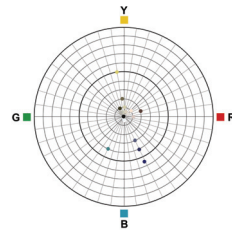
마, 부시 닳아가네요』라는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이는 미국의 뉴테일리에 실린 광고로 부시의 행보를 답습하는 오바마를 비꼬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오바마의 정치적, 정책적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가 접할 수 있다. 이는 벼락 오바마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붉은 정책이 아닌 푸른 정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대변하듯 미셸 오바마의 의상의 주색은 파란색 계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B계열의 분포는 위의 기사가 나기 전까지 자국행사 시의 사진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림 17>을 보면 역시 보조색은 선거 운동 당시나 외교사절 시와 마찬가지로 채도가 낮은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조색의 YR계열과 R계열의 빈도에 비해 보조색의 YR계열과 R계열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에서 모두 RB계열과 B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국행사 시에만 보이는 큰 특징으로 생각된다. 자국행사 시에 주조색과 강조색의 대비를 보았을 때 선거운동 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무채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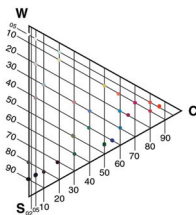
<그림 16> 자국행사 시 주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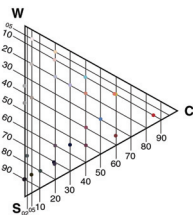
<그림 17> 자국행사 시 보조색 색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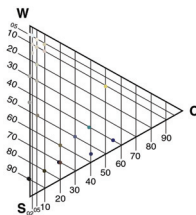
<그림 18> 자국행사 시 강조색 색상분포도



<그림 19> 자국행사 시 주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20> 자국행사 시 보조색 색조분포도



<그림 21> 자국행사 시 강조색 색조분포도

색상 간의 대비로 나타났다.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을 살펴보면 외교사절시의 <그림 15>와는 다르게 <그림 21>에서는 거의 C점에 가까운 Color색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보인다. 주로 White와 White에 가까운 Gray의 빈도가 높으며, S-W축에 가까운 동일한 백색량을 가진 색조들이 나타난다. <그림 20>의 보조색은 Tint 색조와 S-C축에 가까운 Shade색조에 집중되었고, <그림 19>의 주조색은 C점에 가까운 Color색조에 집중되며, S-C축의 Shade색조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자국행사 시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간의 색조 배색은 White-Tint, White-Shade-Black, White-Gray-Tone, White-Black, White-Shade, White-Tone, White-Tint-Gray, Tint-Gray-Tone, Tint-Color-Tone, Tint-Shade-Black, Tint-Gray, Tone-Black, Color-Gray, Color-Tone, Gray-Tone-Shade, Gray-Shade, Gray-Black, Gray-Tone-Black이 나타났다.

5. 3가지 상황별 색상의 비교

<표 1>은 3가지 상황별 색상 빈도를 숫자로 정리한 표이며, 각 상황별 사진기사의 수의 차이 때문에 비교하고자 주조색은 %로 표기하였고 ()에는 나타난 빈도를 표기하였다. 강조색의 ()*는 순색량이 02-20사이의 색상으로 구분이 어렵고 대부분 진주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로 색상에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 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미셸 오바마의 의상 색채는 Y, R, RB, B, BG, N계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계열은 3가지 상황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붉은색이 상징하는 생명력과 자유, 그리고 젊음, 노동자의 다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젊은 버락 오바마의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순색량이 높은 R계열의 의상을 입음으로서 이

런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자를 대변하는 색이니만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약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시에는 B계열의 색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의 소속당인 민주당의 푸른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소속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강조하고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RB계열이 권력과 독창성, 예술, 페미니즘을 상징하여 미셸 오바마의 페미니즘적 행보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RB계열은 같은 고상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특권층에 대한 어필과 자신만의 고유한 독창성,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 중 앞서 말했듯이 RB계열의 가장 큰 의미는 화합과 조화로써 작게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크게는 인종과 성별, 종교, 국가 간의 화합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화합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랑함, 유쾌함, 높은 이상, 희망, 낙관을 의미하는 Y계열은 오바마 정권의 이상을 표출한 것으로 밝고 유쾌함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계의 화합이라는 높은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외교 사절 시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대외적인 이미지에서는 정치적 색을 빼고 낙관과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 운동 시에 볼 수 없었던 B계열은 성취, 헌신, 신중, 내적인 성향, 차가운 이성 등을 대표하는 색상으로 미셸 오바마에게서는 대통령 취임 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내재적으로는 국가와 남편에 대한 헌신을 개인적 성향으로는 신중과 이성의 표출로 보인다. B계열은 특히 국내 행사 시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와 민주당 지원 유세의

<표 1> 상황별 색상 빈도표

	계열	Y	YR	R	RB	B	BG	G	GY	N
	범위	G80Y-Y20R	Y30R-Y70R	Y80R-R20B	R30B-R70B	R80B-B20G	B30G-B70G	B80G-G20Y	G30Y-G70Y	
선거운동 시 (16)	주조색	6%(1)		25%(4)	25%(4)		6%(1)		6%(1)	31%(5)
	보조색	1	1	3	1	1	1			3
	강조색	6(5)*	1(1)*	2	3(2)*	2(1)*				2
외교사절 시 (29)	주조색	21%(6)	7%(2)	17%(5)	17%(5)	10%(3)	7%(2)		7%(2)	14%(4)
	보조색	2	1	2	4	1		1	1	1
	강조색	6(1)*	2(1)*	6(2)*	2(1)*	2	1	1		8
국내행사 시 (38)	주조색	3%(1)	8%(3)	26%(10)	16%(6)	18%(7)	8%(3)	3%(1)	5%(2)	13%(5)
	보조색	2	2	7	8	2	1			5
	강조색	7(6)*	3(3)*	3(3)*	3	3(3)*	1		3(3)*	8

* 순색량 02-20까지로 거의 색상을 볼 수 없는 경우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 선거운동 시와의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IV. 결론

본 연구는 먼저 패션 정치와 그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사례를 통해 패션의 요소 중 색상이 가장 정치적으로 빈번하고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미셸 오바마의 패션 중 색상을 패션 정치의 관점에서 선거운동 시, 외교사절 시 그리고 자국행사 시의 3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NCS 색체계를 사용하여 색상 지각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색상분포도와 색조분포도를 통해 직접으로 색체의 분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에 관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셸 오바마의 패션 색상은 Y, R, RB, B, BG, N계열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중 Y, R, RB, B계열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R과 RB계열은 3가지 상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Y계열은 외교사절 시에만 두드러지고, B계열은 국내행사 시에만 두드

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Y, R, RB, B계열의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Y계열은 명량함, 유쾌함, 높은 이상, 희망, 낙관을 상징하며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정치적 색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되었고, R계열은 진보를 뜻하며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여 나타났다. RB계열은 화합과 나타나고 있으며 작게는 민주당과 공화당, 크게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국가 간의 화합과 조화를 강조한다. B계열은 미셸 오바마의 경우 크게 2가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와 민주당의 색상으로 국내행사 시에서도 보수 성향의 정치를 지지했던 시기와 민주당 지원 유세 때에만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셋째, 미셸 오바마의 패션에서 색조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된 Y, R, RB, B, BG계열에서의 순색량은 0-85까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무채색에 가까운 0-20까지를 제외하면 30-85까지 범위의 순색빈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조색에서의 0-20까지의 빈도가 높은 것은 진주 액세서리의 색상의 유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조는 NCS색상각형의 S-C축 가까이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백색량이 적은 색조를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간의 색조 배색은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한 색조 배색을 선호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으로 미셸 오바마의 상황에 따른 패션의 색상의 사용과 정치적 상징 그리고 색조의 이용, 색조의 배색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의 여성 정치인의 패션 정책을 위한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퍼스트 레이디의 패션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미셸 오바마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빛이나 카메라의 상태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한 실제 의상의 색상과 사진의 색상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패션의 한 요소인 색상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차후 논문에서는 스타일 분석을 병행한 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 국내의 사례를 통한 패션 정치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이세리 (2001). 한국복식에 나타난 고유배색 연구: 조선시대 후기 복식유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 2) 김성복 (2004). 이미지 시대 패션과 정치, 영상문화, 9(-), p.60.
- 3) 위의 논문, p.61.
- 4) 위의 논문, p.66.
- 5) 고대훈 (2010. 9. 20). 패션정치,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0. 10. 5. <http://article.joinsmsn.com/>
- 6) 박찬욱 편 (2008).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p.153.
- 7) 김민수 (2000). 디자인 문화 비평 02: 정치 디자인 권력, 서울: 안그래픽스, pp.1-200.
- 8) 이준웅 (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 인지론적 설명: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2), p.243.
- 9) 강승민 (2009. 8 28). 세련미 넘치는 ‘얼짱 여성 정치인들’,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0. 11. 1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747769
- 10) 패션 G4 ... G20 서울정상회의서 스타일 빔난 4명의 외국 정상 (2010. 11. 17).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0. 12. 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69452&cloc=olink|article|default
- 11) 장애란 (2010. 6. 7). 의복과 이미지 정치, 제주일보, 자료검색일 2010. 11. 1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499#>
- 12) 고대훈. 앞의 기사.
- 13) 양성옥 (2009. 10. 1). 올브라이트의 ‘브로치’ 그렇게 깊은 뜻이! 후세인 “뱀 같다” 악담에 ‘뱀모양’ 달고,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10. 3. 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00101070232047001>
- 14) 이서영 (2010. 3. 10). 나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옷차림,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0. 3. 18. <http://www.segye.com/Articles/FAMILYGLOBAL/Talk/Article.asp?aid=20100310000969&cid=0106021500000&subctg1=15&subctg2=00>
- 15) 박주연 (2009. 6. 16). ‘강금실의 보라색’은 실패한 선택, 주간경향, 자료검색일 2010. 3. 20.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055&pt=tv>
- 16) 김정옥 (2008. 2. 6). 미국 대선 패션 정치학: 오바마 짧게·힐러리 밝게·매케인 편하게,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0. 4. 20.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034490&cloc=
- 17) 정양환 (2007. 2. 7). 패션은 메시지다...대선주자 5인의 스타일 분석,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0. 4. 20.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2030061>
- 18) 강승민. 앞의 기사.
- 19) 이명진 (2010. 11. 10). “스타일로 권력을” G20 정상들의 ‘패션정치학’, 머니투데이, 자료검색일 2010. 11. 12. <http://stylem.mt.co.kr/styview.php?no=2010110917514691620&type=1>
- 20) 김소민 (2010. 11. 12). 클래식 슈트는 신뢰·블루 넥타이는 냉정함...패션 보면 정치가 보인다?,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0. 11. 12. <http://biz.heraldk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12000281>
- 21) 남도영 (2007. 8. 5).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상징색=주황색... 노무현 색깔빼기 주력, 쿠키뉴스, 자료검색일 2010. 3. 2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620056&cp=nv>
- 22) Malkin, M. (2005). 기만의 정권, 김태훈 옮김 (2010). 서울: 시그마북스, p.59.
- 23) 배선희 (1997). 정치인아래의 바람직한 역할 및 위상,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논단 제20회, 자료검색일 2010. 11. 12. <http://www.kwdi.re.kr/etcncfrpbtnViewDt.kw;jsessionid=0lvChbp1jwkcPnMpmiWs2gmOazRi2dDLNLuRgxN7dwQSoN3ErHUFtkEOhkWTZOaE?currPg=6&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2&cmsCd=CM0020&pnum=5&cnm=5&src=&dvsncd=&srcTemp=&ntNo=256&stNo=1>
- 24) 김윤옥 여사의 ‘짧어진’ 패션 ... 역대 영부인들의 ‘옷

- 렘사는? (2010. 10. 24). NEWSIS, 자료검색일 2010. 11.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500576>
- 25) 정미란 (1996). 자연색체계(NCS)에 의한 환경색체계 획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 26) 이세리. 앞의 논문, p.43
 - 27) 위의 논문, p.20.
 - 28) 위의 논문, p.22.
 - 29) 조성아 (2009. 6. 28). 패션으로 보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 일요신문, 자료검색일 2011. 1. 7.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21>
 - 30) 박수홍 (2006). 우리나라 2007년 차기 대선 주자 남성 정치인의 이미지 연구: 색채이미지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31) Heller, E. (2000). 색의 유혹 I, 이영희 옮김 (2002). 서울: 예담, pp.120-121.
 - 32) 우영운, 김창규, 김치용 (2008). 퍼지 논리를 이용한 색채 기반 감성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지, 9(2), p.246.
 - 33) Heller, E. 앞의 책, p.39.
 - 34) Heller, E. (2000). 색의 유혹 II, 이영희 옮김 (2002). 서울: 예담, p.47.
 - 35) 조성아. 위의 기사.
 - 36) Lightfoot, E. (2008). 미셸 오바마 변화와 희망의 퍼스트레이디, 박선영, 홍수영 옮김 (2009). 서울: 부키, pp.205-224.
 - 37) 이해운 (2009. 1. 22). 퍼스트레이디 미셸 ‘패션’으로 연설하다,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0. 4. 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2/2009012200090.html
 - 38) 하연옥 (2009. 1. 22). 희망과 낙관을 입은 미셸,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0. 4. 2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466827
 - 39) 이하원 (2010. 3. 9). 오바마, 부시 닮아가네요,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0. 6.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9/2010030900163.html

A Study on the Colors Worn by Michelle Obama

- From a Fashion Political Viewpoint -

Han, Jee Eun⁺ · Jung, Sung Hye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In the current age of media, the style and appearance of politicians is a part of their political strategies. Politicians represent their tendencies and ideologies with their styles. In addition, their style and image also became important in politics. Michelle Obama, the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was selected in this study, and the colors used in her fashion choices were analyzed using NCS(the Natural Color System). Eighty-three articles were extracted for research from the web from June 1, 2007 to November 30, 2010 and divided into three main situations;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and forum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The colors shown in the pictures were divided into main color, assisting color and stress color by fashion experts and the colors were measured in a vivid ton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 main colors worn by Michelle Obama showed high R and RB affiliations, which symbolized conservatives and the Democratic Party. For diplomatic occasions, the colors worn had a Y affiliation and signified hope and change. For domestic ceremonies, R and B affiliations were specially observed. These colors tend to mean conservativeness. In conclusion, Michelle Obama's fashion style is related to her political orientation. The colors aim to express something, and her choices in fashion style are mad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events.

Key words: Michelle Obama, fashion politics, color, NCS